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아내·친모 살해 오명 벗었다

광주고법, ‘존속살해’ 등 재심서 무죄 판결
사건 16년만…딸 ‘무고’ 혐의만 집행유예
‘수사권 남용’ 인정…檢 “상고 여부 검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어머니를 살해한 딸과 이를 도운 혐의로 처벌받은 아버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확정받았던 백점선(75)씨와 그의 딸 A(4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별도 적용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6일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사건의 범인 이란 오명을 ‘일단’ 벗었다.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백씨 부녀의 아내이자 친모였는데, 검찰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지점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은 다른 의미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A씨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보며 백씨 부녀의 ‘자백’을 바탕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의 살인 행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꼽힌 백씨 부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이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백씨 부녀는 2012년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로부터 약 10년 만인 2022년 백씨 부녀는 검

찰의 위법·강압 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수사관과 검사 등이 특정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백씨 부녀 자백의 증거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법원이 지난해 1월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 결정을 하면서 백씨 부녀는 풀려났고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2심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당시 백씨 부녀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은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법·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심 재판부는 “최초 자백을 비롯한 진술 조서 작성 시 신뢰 관계자의 동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자백 진술의 개연성을 볼 때 수사 기관에서 유도 심문을 반복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사건 담당 검사는 부녀 관계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치정이란 범행 동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A씨는 “검찰과 수사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한 수사를 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강압 수사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사망 피해자들의 삶이 무죄로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금품수수·향응’ 익산국토관리청 직원 무더기 입건

북부경찰, 사무소장 등 7명 수사

50대 건설업자 등 관련자 7명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뇌물수수·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A(50대)씨와 건설업자 B(50대)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6명(6급 4명·7급 2명), 건설·일반 업체 관계자 6명 등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관리청의 발주 공사에 B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여하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받은 A씨는 사업 선정 요건에 특정 공법을 포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22억원 상당 6개 사업 수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가로 골프·리조트·유흥업소 등 결제 비용 300여만원을 6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다른 도로시설물 제조 회사 직원의 청탁을 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충격 흡수 방지시설 2개를 국비 1억4천여만원으로 구입, 순천 지역 도로에 설치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익산관리청 직원 6명은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실시간으로 B씨에게 알려주며 동남아 항공권·골프 결제 비용 등 17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산관리청에서 발주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A, B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안재영 기자

‘계약 브로커’ 코트라 직원 사전영장

국내 기업과 동남아 투자처를 연결해 주고 거래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고위 공무원이 수사망에 올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KOTRA 소속 3급 공무원 A씨와 복수한 광학업체 직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동남아시아 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의 업체가 400만달러 상당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재영 기자

경찰, GIST 산하 연구소 법카 유용·채용 비리 수사

전·현직 6명…GIST “1명은 외부기관 소속”

경찰이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산하 문화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유용과 채용 비리 등의 정황을 확인하고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GIST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및 부정 채용과 관련해 총 6명을 업무상배임·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중 전직 직원 2명은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8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물품 사용료를 가로채는 등 총 1천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4명은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3순위자를 합격시키고 2순위자를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스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된 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전형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기관 소속”이라며 “경찰 수사 대상인 전·현직 직원은 5명”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금타 노사, 올해 임단협 최종 타결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 최종 합의했다.

2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진행된 ‘2025 단체교섭 간사점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천411명 중 2천929명(81%)이 참여한 가운데 1천911명(88.6%)이 찬성해 최종 타결됐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3% 인상 ▲경력급 600만원 지급 ▲안전문화 정착 실천방안 마련 ▲신입사원 임금체계 개선 ▲타이어 쿠폰 지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주성학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최적의 볼란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